"2년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언중유골 주고 받은 靑-기업인 간담회 "대규모 투자하면 기업 방문"

재계, 규제완화 쓴소리에 조건부 승낙 받아친 대통령

"솔직히 1년, 횟수로는 거의 2년 전에 (대통령께)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이 (입법 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건낸 말이다. 4대그룹 총수 중 맏형다운 쓴소리로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8월 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적 기업 200곳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관계 법안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 보라"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최태원 SK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이 관계 법안은 문 대통령이 2016년 19대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다. 공공기관 정책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9대 의회 들어 자동으로 폐기됐다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다시 발의했지만 계류 중인 상태다.

최 회장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진 지는 오래다. SK가 사회적 기업으로 역할을 해내자고 수년째 꾸준히 강조해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사회와 함께 행복한 SK를 주장하면서, 임직원들과 100번에 걸쳐 '행복 토크'를 갖겠다고도 약속했었다.

정부가 기업을 좋게 봐달라는 취지로도 풀이할 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무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등 친 기업 정책에 집중해달라는 의미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문 대통령에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한마디를 뱉었다. 한번쯤 삼성전자 공장과 연구소를 방문해달라는 것. 완곡한 초대 인사임과 동시에, 삼성전자에는 다소 적대적이었던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났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무리하게 '분식회계'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문 대통령도 뼈가 있는 말로 화답했다. 대규모 투자를 먼저 하면 방문하겠다는 조건부 승낙이다. 국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이 부회장 석방 직후 평택 2공장에 30조원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향후 3년간 4만명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실제로 채용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는 중이다.

/김재웅 기자·석대성 수습기자 juk@metro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홍 부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연합뉴스

"경제 활력 되찾는 것이 최우선 의견수렴, 정책 반영에 힘쓸 것"

경제단체장-경제부총리 첫 간담회

플랫폼 개선·수출 지원체제 등 요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주요 경제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활력 되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경제계가 지적하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기업이 쉽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활력을 되찾는 데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정부는 서포트(보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은 활성화 원년으로 삼겠다"며 "신산업과 창업은 규제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사업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력 업종 활성화 대책을 2월 말, 적어도 1분기까지 마련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과의 접촉 면적을 더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리는 홍 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단체장과 공식적으로 가진 첫 간담회다.

경제단체장들도 규제 완화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빅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가 났으면 한다"며 "플랫폼을 개선하고 규제 (완화) 물꼬를 트는데 팀플레이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협 회장은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수출 총력 지원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경총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업종·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심리가 위축됐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외에도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웅 기자

2022년 수소차 8만대로… 점유율 '1위' 목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수소 전 분야 아우르는 추진 전략 마련

활력 제고 필요한 4대업종 대책 모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소차 보급을 2018년 약 2만대에서 2022년 약 8만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의를 거쳐 수소경제 활성화 최종방안이 마련되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소경제 행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도 내놨다.

그는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다루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 30조원을 달성하고 AI 유니콘기업 10개, 데이터·AI 융합 인재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 센터 100개, 빅데이터 플랫폼 10개를 구축하고 AI 서비스를 지원할 'AI 허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AI와 데이터를 융합하는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주력 제조업·서비스업·신산업 내 12개 업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력산업은 2030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 활력 제고가 시급한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업종은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서비스업은 관광·보건·게임·물류 등 4대 업종에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R&CD 혁신 허브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8대 선도사업 가운데 중요한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는 제도개선과 재정·세제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활성화 대책을 2월 말, 늦어도 1분기 내 마련해 하고 상반기 중에 작은 성과라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데이터·AI·수소경제 중기 활성화 계획까지 윤곽이 나오면서 플랫폼경제를 위한 중기계획이 모두 마련됐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처음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는 기존의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로 '투트랙'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유성준 세종대 교수, 안국영 수소학회명예회장,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이 참석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제57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2월 20일~3월 14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9년 2월 23일~3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3일(일), 3월10일(일), 3월12일(화)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